



사노피, 4 개 병원 임상시험센터와 포괄적 신약 임상연구 협력체 ‘프리미어 네트워크’ 구축

- 사노피의 ‘프리미어 네트워크’,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운영
- 세계적인 임상시험 인프라를 갖춘 4개 병원과 신약개발 전 주기에 걸쳐 긴밀히 협조
- R&D 생산성을 결정하는 2·3상 임상시험 등 다국가 임상에 우선 참여를 통해 세계적 임상연구 허브로 가는 초석 마련

2012 년 9 월 11 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제약사업 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장-마리 아르노)는 10 일 어제 국내 임상시험센터 4 곳(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과 포괄적인 신약 임상연구 협력체인 ‘프리미어 네트워크(Premier Network)’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리미어 네트워크(Premier Network)’는 사노피가 임상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임상시험센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프리미어 네트워크의 책임자인 빅토리아 디비아소(Victoria DiBioso) 전무는 “선진 임상 인프라를 갖춘 병원 중에서 3 개 이상의 치료 영역에서 우수한 임상시험 성과를 내온 곳에 한정해 참여 병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최초로 국내 4 개 병원이 포함됨에 따라, 전세계 사노피 프리미어 네트워크 참여병원은 20 여 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프리미어 네트워크에 선정된 병원은 앞으로 사노피가 연구 개발 중인 신약의 2 상과 3 상 다국가 임상시험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임상시험의 국내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국내 환자에 적합한 혁신 신약을 보다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협약식을 위해 방한한 사노피의 앤드류 리(Andrew Lee) 선임부사장은 “이번 출범은 조기와 후기를 아우르는 전 주기의 임상시험 시행에 있어, 한국의 임상시험센터가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신뢰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며, “사노피는 최근 국내에서 몇몇 1 상 임상시험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참여 병원들과 다양한 후기 임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프리미어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특화된 역량을 자랑하는 한국 임상시험센터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소재 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4 개 병원 임상연구센터의 책임자인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장, 김호중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장, 박민수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소장, 방영주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 (가나다순)을 비롯해, 사노피의 임상 과학 및 운영 책임자인 앤드류 리(Andrew Lee) 선임 부사장, 장-마리 아르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2009 년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2013 년도 까지 국내 신약 개발과 R&D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국내에 총 700 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과 신약개발 협력, 투자, 기술제휴,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신약물질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사진 설명]



사노피가 추진하는 아시아 최초의 포괄적인 신약 임상연구 협력체인 '프리미어 네트워크(Premier Network)'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중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장, 박민수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장, 앤드류 리 사노피 임상 과학 및 운영 담당 선임부사장, 장-마리 아르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사장, 빅토리아 디비아소 사노피 프리미어 네트워크 담당 전무, 방영주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장, 박영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CSU 상무, 마크 트래버스 사노피 글로벌 CSU 및 플랫폼 네트워크 담당 선임부사장.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파리 (EURONEXT: SAN) 및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세노비스)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백신(사노피 파스퇴르), 희귀질환치료제 (젠자임 코리아), 동물약품 (메리알 코리아)을 통해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사람에서 동물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다각화된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